

코스피 시소게임에 스팩·정치테마株 등 ‘단타’ 삼매경

개인투자자 올 연간 회전율 446% 집계시작 2008년 이후 가장 높아 보유기간도 절반 줄어 2.7개월 스팩·정치테마주 회전율 상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시 주요 투자 주체로 자리한 개인투자자의 손바뀜이 잦아지고 있다. 한동안 코스피 지수가 3000~3200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던 틈을 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단기 매매 전략을 취했다. 수급 주체들 사이에서도 매매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가운데 유독 개인이 발 빠른 매매에 나서며 한동안 순환매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종목별로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정치테마주 등이 회전율 상위에 다수 포진해 투기적 수요가 여전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단타 매매, 2008년 금융위기 이상

13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시장 개인투자자의 연간 회전율(일평균거래대금×거래일수/일평균시가총액)은 446%로 집계됐다.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코스피

〈최근 6년간 투자 주체별 회전율, 보유 기간〉

연도	회전율(%)			보유 기간(개월)		
	개인	기관	외국인	개인	기관	외국인
2016	143	100	57	8.4	12.0	21.1
2017	132	95	59	9.1	12.6	20.3
2018	172	122	71	7.0	9.8	16.9
2019	136	100	66	8.8	12.0	18.2
2020	423	271	110	2.8	4.4	10.9
2021	446	292	121	2.7	4.1	9.9

/유진투자증권, 퀀티와이즈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던 2011년~2019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회전율이다. 단타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구간으로 평가됐던 지난해 역시 423%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복기하면 2008년 282%, 2009년 370%, 2010년 254%였다. 그때보다도 개인의 단타 매매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올해 회전율은 각각 292%, 외국인 121%로 집계됐다. 기관 역시 개인 만큼은 아니지만 과거 금융위기(182~207%) 수준

을 훨씬 웃도는 회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의 금융위기 당시 회전율은 109~145%로 그때보다 낮은 상태다.

보유기간도 2009년 이후 가장 짧아졌다. 올해 개인의 보유기간은 2.7개월로 최근 14년 평균(5.2개월)보다 절반에 가까운 2.5개월이 줄었다. 미국의 긴축 기조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로 한동안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렀음에도 개인이 적극적으로 단타 매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증시가 오름세를 맞음에도 시장에는 업종, 테마 등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도 관심

이 쏠리는 가운데 당분간 개인을 필두로 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지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개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이 주도하는 현재 코스피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스팩에 정치테마주 최상위 포진

스팩을 향한 투기적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전율 상위 50개 종목 중 스팩이 10%(5개)를 차지했다. 회전율이 높으면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만큼 단타 거래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기업가치보다는 단기 매매를 통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이 짙은 종목들이란 얘기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살펴보면 한화에스비아이스팩이 272.58%로 전체 종목 중 가장 높은 회전율을 보였다. 전 거래일(11일)보다 29.89% 급등하며 4845원까지 상승했다. 이 외에 삼성스팩4호(175.84%), 하나머스트7호스팩(41.25%), SK5호스팩(34.11%), 삼성2호스팩(31.33%)도 손바뀜이 잦은 종목으로 조사됐다.

스팩을 제외한 다른 종목을 살펴보면 삼보산업(179.41%)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티플렉스(165.59%), 한솔로지스틱스(160.77%), 네오티스(151.01%), 넥스트아이(131.86%) 순으로 회전율이 높았다. 이 가운데 삼보산업과 네오티스는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아버지 이 모씨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최근 급등세를 보였다. 금융인 출신인 이 대표 아버지는 과거 삼보산업의 자회사인 하이드로젠과 위의법정관리를 맡았었고, 넥스트아이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일종의 정치테마주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어급 공모주 청약 등 시장의 관심을 끌 만한 이벤트가 끝나며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느끼자 투기적 수요가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전율이 높으면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만큼 단타 거래가 집중됐다는 것”이라며 “기업가치보다는 단기 매매를 통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이 짙은 종목들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자사주 취득·중간배당 등 주주정책 주목

metro 관심종목

LG유플러스

내재가치 비해 기업가치 저평가 2분기 영업이익 15% 증가 전망

LG유플러스가 창사 이래 최초로 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에 나섰다. 중간배당도 함께 실시하는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와 이사회는 의의를 거쳐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주 입장에서 자사주 취득은 현금배당 증가 효과와 주당 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탁월한 재무성과 등 자사의 내재가치에 비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과 환원 정책의 다변화를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간배당도 도입한다. 반기 실현이익에 대한 중간배당으로 주주

〈LG유플러스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유안타증권	2만2000원
한화투자증권·키움증권	2만1000원
메리츠증권	2만원
하나금융투자·현대차증권·SK증권·NH투자증권	1만8000원

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주가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간배당 결의는 서프라이즈”라며 “이번 LG유플러스의 자사주 매입이 단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중간배당 규모가 주당 200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첫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9~10월 모일 예정이었던 배당투자 매수세가 이번에는 6월부터 모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동시에 외국인의 매수강제와 자사주 매입 등이 진행된다면 주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LG유플러스 전 거래일보다 100원(-0.63%) 하락한 1만5650원에 장을 마감했다. LG유플러스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6% 이상 상승하는 등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유안타증권이 2만2000원으로 LG유플러스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올해 1분기 LG유플러스는 매출 3조 4168억원, 영업이익 2756억원으로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주력 사업 부문인 무선사업이 매출 1조 4971억원으로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오는 2분기에도 우수한 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LG유플러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를 전망한다”며 “이동전화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성장 때문으로 점차 SKT 대비 상대적 저평가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상장지수상품(ETP)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효과적인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스피200 TOP 10 레버리지 지수는 코스피200 TOP 10 지수 당일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투자전략을 반영한 지수다. 레버리지 효과로 원지수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지만 변동성 확대에 의한 위험도 증가한다.

/송태화 기자

전국 14곳서 7040가구 청약 접수

분양 캘린더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14곳에서 총 7040가구(주상복합 오피스텔 테라스 하우스 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공급된다.

13일 부동산 전문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강남 최대어 ‘래미안 원베일리’, 인천 용현·학익지구(1블록)도

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 1단지’, 경산 비규제 단지 ‘경산 아이파크’ 등 전국 곳곳에 알짜 단지가 속속 등장해 청약 시장이 뜨거워 전망이다.

건본주택은 평촌 트리시아(2417가구), 목동모아엘가그랑데(420가구),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320가구) 등 총 3곳이 개관한다. 당첨자 발표는 ‘e편한세상 석림 더노블’ 등 16곳, 계약은 14곳에서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yw964@

HDC현산, 경북 ‘경산 아이파크’ 분양

84~142㎡ 중·대형·펜트하우스 경산 입량초·중·도보로 통학 가능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북 경산시 입량읍 부적리 170 일원에서 ‘경산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경산 아이파크’는 84~142㎡로 977가구로 84~101㎡는 중·대형 평면 구성이며 117~142㎡는 펜트하우스로 이어진다. 주택형별(전용면적 기준)로 ▲전용 84㎡A 707가구 ▲84㎡B 156가구 ▲101㎡ 105가구 ▲117㎡P 3가구 ▲131㎡P 1가구 ▲133㎡P 2가구 ▲137㎡AP 1가구 ▲137㎡BP 1가구 ▲142㎡P 1가구 등이다.

입량지구는 총면적 64만여㎡ 규모의 도시개발지구이다. 이 곳에는 공동주택 7500여 가구와 단독주택 500여 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산 아이파크는 경산 입량초등학교와 입량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입량지구에도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부지가 마련돼 있다.

교통여건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 영



경산 아이파크 조감도.

남대역이 반경 1.5km에 위치해 있으며 영남대역을 이용해 대구 수성구 사월역까지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경산IC와 화랑로, 25번 국도 등 대구 전역을 잇는 도로망 접근성도 용이하다.

경산시는 풍부한 미래비전으로 가치 상승 기대감이 높다. 경산4일반산업단지(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프리미엄 아울렛(2023년 계획예정), 탄소융복합 산업 클러스터(MOU체결) 등 4가지 핵심 미래비전으로 지역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거래소 코스피200 TOP 10 지수 등 2종 발표

한국거래소는 다음날부터 코스피 200지수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 TOP 10 지수’와 전략형 지수인 ‘코스피 200 TOP 10 레버리지 지수’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스피200 TOP 10 지수는 코스피 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

목을 선정하여 동일비중으로 산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코스피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대형주를 소그룹으로 압축 구성해 코스피 지수나 관련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개별주식선물이 상장된 종목중 구성종목을 선정해